

안전한 비행을 위한 약속, '좌석벨트 착용' 18일 인천·김포공항 난기류 사고예방 안전캠페인

- 한국교통안전공단·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공동 추진
... 온라인 이벤트 '벨트чек' 이벤트도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정용식), 민간항공조종사협회(협회장 이충섭)와 함께 10월 18일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한다.
 -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.
- 최근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, 이에 따른 비행 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좌석벨트 착용이 필수적이다.
 -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국적사 및 외국항공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8건*의 난기류 사고는 모두 좌석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.
 - * 승무원의 서비스 중 부상, 승객의 화장실 사용 및 이동 중 부상을 포함
- 이번 캠페인에서는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홍보엽서*를 민간항공조종사협회(ALPA-K) 소속 조종사들이 직접 공항 이용객들에게 배부하며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.
 - 이와 함께,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부 온라인 이벤트 “벨트чек!! 이벤트*”의 참여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.
 - * 기내에서 좌석벨트 항시 착용에 관한국토교통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본인이 제작한 벨트чек 영상을 해시태그(#국토교통부 #난기류벨트чек)와 함께 업로드

-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“비행 중 난기류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해 달라”고 당부하며,
- “국토교통부는 항공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지속 검토하고 보강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	강정현 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	구정희 (044-201-4314)
			주무관	노은지 (044-201-4293)

참고 1

난기류 사고예방 안전캠페인 홍보엽서

**예측불가 난기류,
좌석벨트 착용은 필수입니다!**

- 난** 기류는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옵니다.
- 기** 내에서 꼭 좌석벨트 착용
- 류** (유)의하세요. 좌석벨트는 생명줄입니다.



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

POSTCARD

받는 사람

보내는 사람

우표